제11강 르네 마그리트 : 사유 충돌을 통한 이미지 사물의 생성Ⅱ

(1교시-0806-03)

◎ 이종 배합에 의한 사물의 기억 능력 및 시간 자체의 표현

* 그림 3-1 <지는 저녁> (1964)

- 현실과 초현실의 교환
- 사물지각의 표현 : 기억과 시선. (인간 시선을 농락하고 배재함)
- 사물의 시간 (인간의 시간의식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시간을 표현)

* 그림 3-2 <망원경> (1963)

- 라캉의 정신분석학적 해석 : 의식상태와 무의식상태의 구분.
- 시간관계를 통한 해석 : 유리창인 동시에 유리창이 아니다.
→ "회화는 바깥 풍경을 보여주는 창이다."라는 회화에 대한 창 이론을 완전히 뒤집었다. (일상적인 사물에 대한 개념을 탈피. 과거 재현이론에 대한 공격)
⇒ 회화의 독자적인 세계를 잘 드러냄

* 그림 3-3 <단어의 사용> (1928)

- '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'
- 파이프 그림은 파이프를 그린 것이 아니다. (**그림 자체가 독자적인 이미지**가 된다)
- **문장을 해석하려는 통념을 버려라.** (그림 속에 들어온 문장은 이미지일 뿐이다.)

(2교시-0806-04)

◎ 단어와 이미지의 이종 배합

* 그림 4-1 <두 가지 신비> (1966)

- 실물 자체가 본래 이미지적인 것이다. (그림을 통해 실물로 나아가는 길은 무한히 막혀있다. 재현 시스템의 공격.)

* 그림 4-2 <대기와 노래> (1964)

- 글과 그림 등에 대한 정해진 통념을 충분히 이용, 그것에 올라타고 있으면서 동시에 넘어버린다. (마그리트의 탁월한 재능)
- 역설적 현기증.
⇒ 사유가 사유의 한계를 보여준다.

www.artnstudy.com

사유를 한껏 발휘하면서 그것의 한계를 보여주는 역설적인 형태.

* 그림 4-3 <거대한 나날들> (1928)

* 그림 4-4 <두자매> (1915)

- 기리코의 작품 : 마그리트가 많은 영향을 받음. 대체로 음산한 분위기.

* 그림 4-5 <빛의 제국> (1954)

- 낮과 밤의 기묘한 대비

◎ 마그리트 회화에 대한 정리

- 미술사 자체에 대한 반성과 공격.
- 이미지의 존재를 독자적으로 확보.
- 뒤샹이 레디메이드에서 보여줬던 것을 회화를 통해 그리고 있다. (사물자체가 지니고 있는 초월적 독자성을 보여줌).

※ 참고문헌

수지 개블릭, 『르네 마그리트』(천수원 역, 시공사, 2000)
푸코, 『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』(민음사, 1995)

www.artnstudy.com